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17, 2019 Vol. 656



남가주한인목사회 제 52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13일 오후 4시 30분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거행됐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2대 회장단 이·취임식 거행돼

"협력하는 목사회 되어 남가주 사회서 피스메이커 되길"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 제 52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13일 오후 4시 30분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거행됐다.

1부 예배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자"(사도행전 3: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앉은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이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또 걷고 뛰게 되는 육체의 변화를 말한다. 세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앉은뱅이가 위대한 간증자로 바뀌게 되는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주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목사회 모임을 통해 모이기만 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목사는 "남가주목사회가 협력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목사님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교계에 샘물 역할을 해서 남가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임 인사를 한 샘 신 목사(51대 회장)는 "'끼니와 같은 친구'란 말이 있는데, 끼니는 한 끼도 거르면 안되니까, 매일 만나야 하는 좋은 친구를 가리킨다"라며 "진정한 친구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52대 남가주목사회 임원진들은 모두 '끼니와 같은 친구'에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취임 인사를 한 김관진 목사(52대 회장)는 "남가주목사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민 목회에 유익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본이 되고 목사의 위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변화되는 목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권위가 무시되고 도덕이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1부 예배에서는 박세헌 목사(부회장)의 인도, 찬양인도에 이상권 목사(부회장), 고동욱 목사(부서기), 김신득 목사(분과위원장), 기도에 김근수 목사(OC 목사회 회장), 성경봉독에 최명상 목사(부회장), 별미의 찬양에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설교에 한기홍 목사, 봉헌기도에 이은향 목사(OC여성목사회 회장), 봉헌송, 축도에 최학량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사회에 강태광 목사(총무), 내빈소개, 이임인사에 샘 신 목사, 취임인사에 김관진 목사, 목사회 기 이양, 취임패 수여, 공로패 증정, 축사에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회장), 축하영상에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 격려사에 홍영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광고에 이상권 목사(부회장), 초청찬양에 전용대 목사(아워드림선교회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캘리포니아 목회자 "동성애는 죄" 표지판 세웠다가 교회 사임



호크 목사가 세운 교회 표지판. ⓒ저스틴 호크 목사 페이스북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목회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교회 표지판 때문에 마지못해 사임하게 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시스키유 카운티에 위치한 트리니티 성경장로교회(Trinity Bible Presbyterian Church) 저스틴 호크(Justin Hoke)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회 표지판과 관련된 시위와 훼손 행위로 교회를 떠난다"고 밝혔다.

작년 말, 호크 목사는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브루스 제너(성전환수술로 여성이 된 한 미국 남자 육상선수. 이후 케이틀린 제너로 개명함-편집자 주)는 여전히 남성이다. 동성애는 여전히 죄이다. 문화는 변화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적힌 교회 표지판을 찍어서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친동성애 단체인 '러브 랠리'는 1월 6일 주일, 호크 목사가 예배를 드리기 전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표지판과 내용 역시 훼손됐다. 그러나 시위를 조직한 이들은 "표지판과 그 내용을 훼손한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면서 부인했다. 12일 호크 목사는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난 더 이상 트리니티 성경장로교회 목회자가 아니"라면서 "발생한 일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 교회의 한 장로가 교회 지도자로서 나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또 한 쌍의 부부는 내가 사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로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부부는 만약 내가 떠나면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다른 장로들은 남아서 목회적인 책임을 맡기로 했다. 따라서 교회와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것이 지역 공동체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4일에는 "내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머물고 싶었다"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교회 측에 호크 목사의 사임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호크 목사는 "만약 불타는 건물을 보면서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2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교회 표지판을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예배 : 오후 5:30
■ 금요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틴데일 국제대학교
Tyndale International University
2019년 봄학기 신(편)입생 및 장학생 모집
1. 개강 예배 : 2019년 1월 28일(월) 6:00 P.M.
2. 강의 일자 : 1월 28일(월)~5월 9일(목) 7:00 P.M.
3. 문 의 : TIU 교무처 T.(213)595-3181/393-7389

■ 강의 일정

월요일	설교학	김정오 박사
	성령론	최희규 박사
화요일	로마서	김승곤 박사
	모세오경	이창배 박사
목요일	바울신학	염광열 박사
	선교학	박기태 박사

■ 모집 학과

Certificate of Missiology (C.Miss)
Bachelor of Theological Study (B.Th.)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T.S.)
Master of Divinity (M.Div.)
Master of Theology (Th.M.)
Doctor of Ministry (D.Min.)

여름방학 기간 동안
히브리어 기초, 헬라어 기초
4주 특별반 개설 예정



총장 : Frank J. Smith
PH.D., D.D. – PRESIDENT

어느 신학교를 결정하는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틴데일 국제대학은 바른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선도하는
경건과 학문의 중심입니다.
철저한 학사관리로 본 대학에서의 학업은 쉽지 않지만
졸업 후에는 자부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TYNDALE INTERNATIONAL UNIVERSITY
4270 W. 6th St. Los Angeles, California 90020
Office T.(213)595-3181, Cell T.(213)393-7389
www.tyndaleinternationaluniversity.org / www.yalamission.com
tiu4270@gmail.com / info.tyndaleinternationaluniversity@gmail.com



남가주교협이 신년교례회를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열었다.

남가주교협 신년교례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남가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이 신년교례회를 14일 오전 11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열었다.

이날 교례회는 사회에 이석부 목사(나성금란교회, 부회장), 기도에 김준대 목사(상임이사), 성경봉독 정경희 목사(여목사회 회장), 설교에 이우형 목사(상임이사장), 광고에 안신기 목사(총무), 축도에 김관진 목사(목사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우형 목사는 "신실한 종으로 충성하라"(시편 15:1-2, 고전 4:2)는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신실한 종은 자기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라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이뤄지는 우리의 일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감사와 친교 시간에는 한기형 목사가 인사 소개를 했으며, 제임스 안 장로와 김향로 이사장이 덕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안 장로는 "올 한해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며 "교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협은 116주년 한인회날 기념 및 카퍼레이드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20일 오후에 드릴 예정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십계명' 논쟁… 유효한가 아닌가?

앤디 스탠리 목사의 주장에 신학자들 반박

미국의 앤디 스탠리(Andy Stanley) 목사가 최근 자신의 칼럼에서 '십계명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신학자들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스탠리 목사는 "신약에 참여하는 이들(기독교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십계명 중 어떤 것에도 순종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언약의 일부로 말씀하신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저지른 수 많은 악은 구약이 기독교와 혼재되어 있는 측면과 관련돼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전조가 되신 분이지, 이를 연장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던복음주의신학교 총장이자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편집고문인 리차드 랜드 박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스탠리 목사가 '새로움'(new)과 '성취'(fulfillment)를 혼동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랜드 박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제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있다'는 더욱 놀라운 영적인 이해를 가져다주신다"고 덧붙였다. 랜드 박사는 또 "다른 역사적인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10계명은 미국의 문명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이나 영문으로 된 관습법을 읽어보면, 이는 10계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십계명비를 인정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비올라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제프리 포크머 박사는 "기독교 내부에서 구약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쟁은 처음부터 있었다"면서 "'혼합주의 신학'에 대한 스탠리 목사의 우려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약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은 신약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현대 기독교 신학에 존재하는 맹점에 관한 스탠리 목사의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극단적인 단절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자체는 구약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애도의 기술



백금선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뉴요커들이 평화롭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던 오전 8시 46분! 납치된 항공기가 110층 쌍둥이빌딩으로 돌진했다. 이 공격으로 두 개의 높은 빌딩은 한순간에 붕괴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다.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많은 사람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상실감을 느끼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현대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로 상실의 빈도가 잦아진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예상치 못한 테러와 사고들로 우리의 사회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위험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부모를 잃게 되고 때로는 친구와 절교를 하기도 하며 사랑했던 부인 혹은 애인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신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실을 겪을 때도 있다.

이렇게 애도는 우리의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애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애도는 인간이 어떤 대상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픈 감정이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슬픈 감정을 숨기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 많은 사람이 자연스러운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의 애도로 우리의 슬픈 감정을 혹은 타인의 슬픈 감정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애도의 말을 흔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프로이트는 '상실은 자아가 사랑하는 대상에 투자한 리비도가 대상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부재한 대상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의 말처럼 상실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잊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힘든 자신의 애도 작업을 통해서만 잊히는 것이다. 잊으려고 하면 더욱더 기억은 선명해지는 법이다. 잊으려 노력하지 말고 기억하고 회상하며 또 그 기억을 언어로 표출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말로 안 된다면 글로 쓰며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런 노력을 통하여 리비도를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둘째. '여행을 가봐, 즐거운 생각을 해. 기도를 열심히 해라.' 등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애도의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맞는 애도의 작업이 있다. 어떤 이는 몇 개월 혹은 몇 주 만에 애도의 과정을 마치는가 하면 수년간을 혹은 평생을 애도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애도 기간이 짧다고 또 길다고 해서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애도의 시간과 방법을 표준화해서 말할 수 없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까운 사람에게만 애도의 과정을 나누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들과 그 슬픔을 나누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애도 과정 중간에 멈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애도 과정을 끝내지 못해 힘들어 한다. 이런 경우에 그 과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상담사나 상담센터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받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내면에 있는 감정을 표출해 내며 스스로 슬픔의 원인에 직면하여 자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애도는 상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잃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야만 하고 현실에 적응해 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언급한 애도의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올바르게 상실을 대처하고 또한 그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시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OPEN HOUSE
January 24, 2019 @ 7pm
ACSI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회 거행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가 13일 오후 5시 로고스교회에서 170명이 자리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안신기 목사)는 매년 연초에 3개 지방회 교역자 가족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에는 1월 13일 주일 오후 5시 파사데나에 위치한 로고스교회(담임 신동수목사)에서 170명이 자리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거행했다. 안신기 목사의 사회로 거행된 1부 예배에서는 김종호 엘에이 지방회장이 기도하고 총회장 최경환 목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김성식 목사의 인도로 총회와 지방회, 조국과 교회, 교역자회 등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이번 신년교례회에는 3개 지방에 속한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Joyce Kim, Davis KIm, Yeayoung Vac 등이 장학금을 받았고 송증복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2부 순서에서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윤성원 목사의 영상 인사와 박영선 부에나팍 시의원의 신년인사, 이정근 목사의 덕담, 이경호 목사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고 각 지방회와 기관들이 새해인사를 나눴다.

3부 만찬의 시간에는 신원철 목사가 감사기도를 드리고 선물 교환 및 행운권을 추첨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가주교협, '116주년 미주한인의날 선포식' 참가

LA카운티의 5명의 슈퍼바이저 참석해



116주년 미주한인의날 행사 일환으로 LA 카운티홀에서 미주한인의날 선포식이 15일에 열렸다.

지난 15일, 116주년 미주한인의날 행사 일환으로 LA 카운티홀에서 미주한인의날 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카운티 행사는 미주한인재단 이병만 회장이 작년 115주년 미주한인의날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대표회장을 맞으며 다시 재개됐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교협이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는 LA카운티의 5명의 슈퍼바이저와 150명의 타민족 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3명의 한인 민속 장고춤 팀이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공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황인성 부총영사와 이병만 미주한인재단회장의 감사인사가 있었으며, 기념촬영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신년하례 및 신년 감사예배 드려



사우스베이목사회가 신년 감사예배를 16일에 드렸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이상훈 목사)가 신년하례 및 신년 감사예배를 16일 오전 8시에 토랜스 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은혜롭게 마쳤다. 장경일 목사의 인도로 찬양을 부른 후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상훈 목사(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회장)가 사회를, 안병권 목사(직전 회장)가 대표로 기도하고 고창현 목사가 설교했다.

고 목사는 설교 본문으로 사도행전 5장 33-42절을 읽고, '교회 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금년 100세가 된 김형석 교수의 저서에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쇠태하여 가는 현실을 이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못한다. 한국교회나 미국 교회들도 유럽 교회의 현상을 닮아가는 모습에 대한 염려가 되고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받지 않고 있다. 이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세속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 표현이요, 그런 모습이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이어서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 및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년 새해 인사순서에서 이종용 목사는 "올해는 모두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는 "기도에 힘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다"고 신년사를 했다. 이날 예배는 고창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LA씨티교회, 제 1 일터교회 창립예배 드려

'일' 자체가 소명이자 예배



LA씨티교회가 제 1일터교회 창립예배를 11일 오후 5시에 드렸다.

LA씨티교회(써니 김 목사)가 제 1일터교회 창립예배를 11일 오후 5시에 드렸다.

이날 폴 김 선교사가 일터 선교사로 세워지고, 일터에서 주의 제자 직분을 감당하도록 모인 이들과 기도하며 다짐했다.

써니 김 목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괴리감이 있다면 바로 일터와 교회에서 신앙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라며 "내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고 사실 적절한 해답을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었다. 일터인 직장은 그저 돈을 버는 곳이고, 그렇게 얻은 수입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만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일'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다. 우리의 인식이 바로 전환될 때 우리는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은 어제까지만 해도 Business as Mission(BAM)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이제는 사업을 선교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강하게 '사업을 하는 목적은 선교다'라는 것이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중심, 예배중심, 성령중심'의 경영원리를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터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도로 일터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일터에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96〉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복음 전하는 선교 이야기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의 교회는 날마다 큐티를 한다. 이번 주중에 마가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한 때를 회상했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불러 둘씩 한 조를 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 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 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막6:7-12) 필자가 이슬람권 선교를 시작한 무렵 12년전 목회자 비전스쿨을 받고 단기선교 훈련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선교 간 곳이 중국 령인 위그루였다.

장기선교를 하시는 현지선교사들의 교육을 하루 종일 받았다. 현지 문화, 에티켓, 간단한 언어 등을 배웠다 그리고 위그루 수도인 우룸치에서의 도시선교를 했다. 공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분보다 5살이 위였다. 그에게 이름을 지어 달라해 내 이름이 "알름잔"이었다. 알라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했다.

그리고 다음날 도시의 가정을 방문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정을 방문했다. 동네 입구로 들어서기만 해도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따라다녀 그들의 집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목이 말라 물 한잔 부탁하면 대부분 가정집들은 흔쾌히 우리를 영접했다. 6월에 접어든 때라 날씨가 많이 더웠다. 대부분 그들은 검소한 느낌을 준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 되어있다. 물 한잔에 그치지 않고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다. 차와 다과를 내온다. 맛있게 먹으며 떠듬떠듬 언어 책을 뒤지면서 대화를 해 갔다. 한국 드라마와 가수들이 매우 인기였다. 한 가정은 "주몽"이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딸과 노부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 둘.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말하면, 머뭇거리기는 하지만 배척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되는가를 물으면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사영리 전도책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한다.

그때에 반응이 엇갈린다. 예수님을 말하면 대부분 우리는 알라가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거절하면 멈춘다. 어떤 이는 이제 가라고 권한다. 어떤 이는 쿠란을 준다. 그러면 "아쌀라 알레이꿈" 하며 그 가정을 축복하고 나온다. 그렇게 가정을 방문하며 선교하는 성경적 전략을 시행하는 선교단체가 있음에 매우 감사했다.

한번은 카시미르라고하는 한 시골 공원에서 전도했다. 한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우리는 기뻐하며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의 집에 갔는데 아주 큰 포도 과수원을 하는 집이었다. 대가족이었다. 노부모님, 장모님, 두 동생, 아내, 그리고 자녀들 5명. 그렇게 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밤늦도록 아프신 부모님과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동생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다. 온 몸이 땀이 흐르고 옷이 젖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그 가정을 축복했다. 그들도 기뻐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았다. 그렇게 열방의 땅에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 그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단기선교의 사명을 어어가고 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성령 충만과 행복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경건한 신앙인들 중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주장의 근거는 '경건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요, 행복은 인간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명령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삶, 즉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모세 오경에서 강조하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원칙이고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리는 원칙입니다.

신약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이 '기뻐하라!' 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거듭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경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원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비결이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싫어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행을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탄의 유혹과 기만을 두려워하며 피해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몰라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며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행복은 나쁜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타락하기 이전 에덴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타락이전 에덴동산의 기쁨과 행복의 회복이 구원의 완성이요 영성의 회복입니다. 타락이전 에덴동산의 기쁨과 행복의 완전한 회복은 천국에서 완성되겠지만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에덴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장 근접한 상태가 성령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 특징은 기쁨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 중에 우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TEE로 지역교회와 선교현장의 확장 돕는다



TEE 세미나가 1월 28-29일 애나하임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린다.

TEE가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KTEE 미니스트리(디렉터 한순진 목사)는 지난해 한국과 미주, 그리고 해외 선교 현장의 목회자와 선교사 823명을 대상으로 TEE 지도자 자격증 과정 세미나를 가졌고, 현재 1만 5천여 명이 TEE 학습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은 중미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미국의 랄프 윈터 박사가 기존 신학교육의 틀이 현지 교회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 선교사 로스 킨슬러(R. Kinsler), 제임스 에메리(J. Emery)와 같이 교회 리더와 목회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한순진 목사에 의하면 지난해 KTEE 미니스트리는 멕시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인도, 터키, 아프리카 등에서 TEE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TEE는 한국과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제자훈련으로 사용하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신학 대안교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그 결과 사역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TEE가 지역교회와 선교현장에서 채택되는 이유는, 교육 방법이 쉽고 성경에 근거하며 단계별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으며,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목사에 따르면, 지난 17년간 약 3천 5백여 교회가 TEE 과정을 해오고 있다. 미주 한인교회도 4백여 교회가 이 과정을 하고 있다.

TEE 과정이 지역교회에서 시작되려면, TEE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정기 세미나가 열리지만, 미주지역은 특성상 산발적으로 열린다.

미주지역 첫 세미나는 1월 28-29일, 오전 9:30부터 오후 5시까지 애나하임에 소재한 아름다운교회(이봉하 목사)에서 열린다. 이 세미나 등록비는 100불이며, 전화 714-350-4211, 혹은 웹사이트 www.ktee.org를 통해 할 수 있다.

당선공고



회장 : 주재임 목사



수석부회장 : 조은혜 목사

2019년 1월 7일 오전11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정기총회가 정회한 후 2019년 1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속회하여 주재임 목사가 제9대 회장에 수석부회장에는 조은혜 목사가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부회장 : 박소피아 목사, 조미나 목사 **총무 : 한수지 목사**
서기 : 양인희 목사 **회계 : 김영일 목사**
감사 : 김헬렌 목사, 강정자 목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2018년도 제8대 회장 안선신 목사
공천위원장 김헬렌 목사

회장 이취임식

남 가 주 한 인 여 성 목 사 회

■일시 : 2019년 1월 27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JJ그랜드 호텔



이임 회장
안선신 목사



취임 회장
주재임 목사



취임 수석부회장
조은혜 목사



취임 이사장
박철규 장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제8대 회장 안선신 목사
제9대 회장 주재임 목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Women Ministers Association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목적

누가복음 19:1-1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누가복음 19:1-10

1.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께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 다니실 때 누가복음 18:18 이하에 돈 많은 어떤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하는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하시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관원은 계명을 다 지켰으나 영생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고로 물질 기대심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35 이하에는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소경이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하셨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했을 때 예수께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하니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 받았음에도 돈에 애착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떠났지만 소경 거지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과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2. 예수님을 구경하러 모여든 여리고 주민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과정이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기사와 이적을 통한 표적들의 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 들었을 것 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 보거나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과정에 과다 징수하여 자기 몫을 챙겨 치부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증오(憎惡)의 대상이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들어온 터라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이미 예수님 주변을 겹겹이 둘러선 무리들 때문에 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뵙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행렬의 방향을 살펴 보다가 가시는 쪽 길가에 서있는 뽕나무 가지로 올라가서 그 아래로 지나가실 예수님 뵙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말고 뽕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쳐다 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생면부지초면(生面不知初面)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부르실까? 그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신성(神性)에 감동(感動)되었고 더욱이 자기 집에 유(留)하시겠다는 말씀에 서둘러 내려가서 예수님 앞서 자기 집으로 모셔 가는데 뭇사람이 수군거리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하면서 삭개오를 멸시폄하 하면서 예수님까지 같은 류(類)로 취급 하는 듯 했습니다.

3. 삭개오의 철저한 회개와 구원

고린도전서 12:3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해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들이기 바쁘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것을 토색(討索)한 것(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했습니다.

민수기 5:7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20%)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하셨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피해 입은 사람에게 4배(400%)로 갚겠다 한 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온전히 용서 받기 원하는 간절함에다 그 많은 재산(財産)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선언도 삭개오 자신이 지금까지 도적으로 살아온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아 구원얻기 위한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도적질한 것에 20%만 더 계산해서 갚으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했으나 400%를 갚겠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지난날의 죄책감에 후회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하심으로 그토록 철저했던 삭개오의 회개는 도적질한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심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롬4:16).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하셨으니 그날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 목적이 삭개오를 구원하실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삭개오는 회개시 선언한대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았으며 돈 방석으로 알았던 여리고 세리장직을 즉시 버렸습니다. BIBLE DICTIONARY(바이블 딕션어리/성경사전)에 의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서 그곳 감독과 교회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구제와 봉사를 힘썼기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 탐욕에 이성을 잃고 도적질하는 괴수같았던 그가 회개한 후 영적 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삭개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본능 따라 세속적 허욕을 채우려 죄악을 일삼고 있었으나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알아보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어 오로지 영적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희생적 헌신과 봉사로 구령성과를 위해 감독으로 목회자로 성직자로 요긴히 쓰임 받았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열매도, 중생(重生)의 변화도, 내세(來世) 소망을 위한 섬김의 열매도 확실해질 때 주님께서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신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회당이나 구경하러 또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구경삼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상 누구를 만나는 장소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밖의 시각에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통칭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15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 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연고로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에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기에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 정통한 말씀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삭개오와 같이 지금까지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고 성령님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성과(靈的成果)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임마누엘을 위한 기도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언,행(思,言,行)이 확실히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선교를 위해 복음의 제물 되어 한 평생을 희생적 헌신으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주 제67차 성경완독집회
2019년 1월 21일(월) ~ 24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정화미 선교사

새해, 첫달 성경 66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해

마태복음전체 (안성기 목사), 빌립보서 (이복자 전도사)
야고보서(정화미 선교사) 암송시범도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시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숙식 제공
집이 가까운 분은 집에서 왕래 가능

일 시 2019년 1월 21일 (월) ~ 24일 (목)
장 소 라모나 Ramona 수양관
17806 Oak Hollow Rd, Ramona. CA 92065
Tel (224)622-9183 Cel (909)268-4279
주 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참 가 비 1인당 $70 (숙식비 포함) / 부부 $100
등 록 1월 21일 (월) 당일 오전 9시~10시
준 비 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개회예배 1월 21일 (월) 오전 10시
수 료 식 1월 24일 (목) 오후 6시
특 강 성경통독 세미나: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찾아 오시는 길
www.ramonalogos.org
☆ LA 방향
5번 고속도로 ▶ CA ▶ 78 동쪽 방향 (Oceanside)
15번 고속도로 ▶ CA ▶ 78 동쪽 방향 (Escondido)
☆ San Diego방향
5번 고속도로 ▶ Poway 동쪽 (CA - 67 북쪽 방향)
17806 Oak Hollow Rd, Ramona. CA 92065

주최: 말씀사랑운동미주요한선교단 (대표:안성기) 장소: 라모나 RAMONA 수양관 TEL: (909)268-4279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동충하초의 핵심성분인 **코디세핀**은 항암, 혈당조절, 두뇌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한병 분말 100 g
$130+Tax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0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항암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하면 항암효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명성에 걸맞게 동충하초는 높은 종양 억제율의 항암성분으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췌장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력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당체, 만니톨, 에르고르테롤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니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
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에겐
이처럼 큰 희소식이 없네요!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마약중독 후유증,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장애를 예방하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번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물과 함께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먹습니다.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요거트에 1티스푼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밥할 때 넣어서 밥(4인분 기준 4스푼)을
지어 먹습니다. 각종 요리에 뿌려서 먹습니다.

구입 문의 **213. 434. 1170**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뉴저지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신년을 맞아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뉴저지온누리교회 신년부흥회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까지 일어나길"

뉴저지온누리교회를 7년간 역동적인 목회로 이끌고 있는 마크 최 목사가 올해 성령의 권능을 힘 입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지향할 것을 강조했다. 또 뉴저지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 북한 지하교회까지 일어나기를 기원했다.

매년 초 신년부흥성회를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뉴저지온누리교회는 올해도 새해 첫날인 1월1일부터 시작해 11일까지 매일 저녁 부흥성회를 진행했다.

부흥성회 형식도 역동적인 교회답게 참신하게 기획했다. 지난해에도 신년부흥성회에 뉴저지와 뉴욕의 주요 목회자들을 초청한데 이어 올해도 김바나바 목사, 김학진 목사, 박형은 목사, 양춘길 목사 등을 신년부흥성회 강사로 초빙했다.

부흥회의 주제는 올해 온누리교회의 교회 표어인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로, 신년 첫 주일은 초청강사가 말씀을 전했고, 1월7일부터 11일까지 마크 최 목사가 신년부흥성회 말씀을 전하며 올 한 해 뉴저지온누리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선포했다.

마크 최 목사는 1월6일 올해 첫 주일설교에서도 '교회여 일어나라'(행1:1-11)는 제목으로 올 한해 뉴저지온누리교회가 교회의 표어인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마크 최 목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지상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변하고 성령이 원하는 교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크 최 목사는 '뉴저지온누리교회여 일어나라', '미국의 모든교회와 한인교회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북한의 모든 지하교회여 일어나라'고 힘차게 외쳤다.

또 마크 최 목사는 성령의 선물은 물질이나 명예, 돈이 아님을 강조했다. 마크 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선물은 명예나 성공, 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면서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를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움직이게 하실 것이다. 그 곳에 가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것이다.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크 최 목사는 "사람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따라 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뉴저지와 미국을 넘어 한국과 전 세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크 최 목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선교 할 당시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에 더욱 빨리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처럼 우리 또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 형제교회 신년 말씀사경회 성황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19년 시애틀 형제교회 신년 말씀사경회에서 강의하는 노승환 목사

2019년도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 준 목사) 신년 말씀사경회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사역회는 토론토 밀알교회 노승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복음 전체를 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노승환 목사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노 목사는 "이 본문은 후대에 삽입된 구절로 요한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나 요한복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구절"이라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만이 참 빛'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음한 여인 사건 이후 요한복음의 후반부에는 빛 되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며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과 공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고,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연결해 볼 때 간음한 여인 사건이 적절하게 필요한 순간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들의 죄를 땅에 쓰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공의, 사랑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키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에서 죄인을 건져내셨다"며 "누구든지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요, 주 앞에 온전히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은 자들이다. 구원의 감사가 흘러 넘칠 때 주 앞에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 덧붙였다.

폴 원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금요전도 오후 1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6:00
수요예배 오후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6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EM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주님을 향한,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8:00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 청년대학부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 유초등부 오전11:00 /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 목요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후 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1부 오전 7:00 / 주일 2부 오전 9:00 / 주일 3부 오전 11:15 (Blended Service) / 사랑부 오전 9:00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1부 오전 7:00 / 주일 2부 오전 9:00 / 주일 3부 오전 11:15 (Blended Service) / 사랑부 오전 9:00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 배 오후 8:00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1부 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0 / 3부예배 오전 11:30 /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30 / 3부 EWS 예배 오후 2:00 /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E.M 예배 오전 11:00 /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8: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황교안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통합 위해 새 출발"

15일 자유한국당 입당 예정… SNS에 소감



지난 2017년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던 황교안 전 총리. ⓒ총리실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13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참 고민이 많았다"며 "공직을 떠난 후 1년 반 넘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백이면 백, 생각하시는 것이 다 달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전 총리는 "하루 빨리 나서라, 이미 늦었다... 너무 빠르면 안 된다, 천천히 나서라... 당신이 해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 각자 다른 의견들이었지만, 딱 한 가지 같은 말씀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것이었다. 저는 그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왜 지금' 이냐고 물으셨다"며 "당에 들어가려면 좀 더 일찍 갔어야 하고,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면 좀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 걷게 되는 정치인의 길"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걱정도 된다. 저 혼자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 수많은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에 힘을 보태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며,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던 황 전 총리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주로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황 전 총리는 현재 한 교회의 전도사로도 사역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유기성 목사 "알고도 믿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유기성 목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가 14일 '알고도 믿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SNS에 게재했다.

유 목사는 "다니엘서로 말씀 기도를 하면서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려 한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다"며 "이번 말씀기도회 주제가 '황폐한 곳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인데, 주님은 먼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빛으로 속속들이 비추신다"고 전했다.

유 목사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을 보고도, 벨사살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를 썼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이라며 "벨사살 평생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 은혜받은 날이 심판의 날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부인하는 죄이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벨사살 왕에 대해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한 구절이 두려운 말이다. 하나님도 은혜도 복음도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유기성 목사는 "다니엘은 달랐다.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안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벨사살의 왕비 입을 통해서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목사는 "우리나라가 벨사살 왕의 바벨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죄, 탐욕과 음란과 거짓을 부추기는 모든 죄를 대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다가오는 멸망의 시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억류된 김정욱·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목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알고도 믿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의 인생, '메네'의 때가 온다. 우리 힘으로는 '데겔'이다. 모자란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이 모자란 상태로 마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자로 서게 하실 것이다.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마지막 때는 아버지에 품에 안길 것이니 감사하다. 오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만 힘쓰자. 할렐루야"라고 권면했다.

이대웅 기자



조이스 마이어 목사. ⓒ조이스 마이어 미니스트리스 제공

조이스 마이어 목사 "번영 신앙과 믿음, 불균형적이었다"

성경 어디에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약속 없다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인 조이스 마이어(Joyce Mayer) 목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번영 신앙과 믿음이 때로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어 목사는 "번영 신앙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 믿음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이 역시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 누군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난 그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의 죽음과 같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고, 당신의 삶 속에서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믿음은 굉장한 능력이지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없다. 당신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든지, 삶에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프랭클린 그래함, 크리스찬 베일 수상소감 비판… "사탄, 실제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보도화면 캡쳐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분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뒤 남긴 "사탄에게 감사한다"는 소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최근 이에 대해 언급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일의 수상소감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사탄은 실재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그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면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라고 기록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래함 목사는 "나는 죽음을 정복하고 내 영혼을 보혈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믿음과 신뢰를 그분에게 두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초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저스틴 비버와 결혼한 헤일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SNS 통해 신앙 담은 새해 소망 공유

지난해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결혼한 모델 헤일리 비버가 자신의 SNS에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일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19년 새해 소망에 대한 글을 1천 690만 명의 팔로워들과 공유했다. 헤일리는 "나는 취약하고 상처를 쉽게 받고 두려움과 의심 불안을 갖고 있다. 나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다"면서 "2019년에 더욱 개방적이 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이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외모 등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느낌을 가진다"고 했다.

배우 스테판 볼드윈의 딸이기도 한 헤일리는 팔로워들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이러한 메시지를 쓰지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배워가고 있는 젊은 여성이다.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속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결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영영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각자 고유의 아름다움과 성격, 스토리를 갖도록 만드셨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 분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

헤일리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올해 저는 저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하고, 사랑 받고, 여러분도 충분하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며 글을 마쳤다.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비버는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힐송 칼 렌츠 목사, 채드 비치 목사, 유다스미스 목사 등과 소통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1부예배(EM) 오전 9:30 / 2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 한어청년부 오후 2:15 /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0:45 /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 주일2부 오전 9:30 / 주일3부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 주일2부 오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 (2부) 1:30pm / 새벽예배 (월-토) 5:00am / 화요중보기도회 7:00pm / 수요돌파기도회 9:00pm /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 (다음날) 7:00am /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30 /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 2부(한국어) 오전11:00 / 3부(영어) 오후1:30 / 주일학교 오전11:00 /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한국학교(토) 오전 9:00 /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11: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 셀기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 영어예배(EC) 오전 9시 30분 /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저녁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북한, 김동식 목사 납치 사죄하고 유해 송환하라"

국회서 피랍 19주기 · 순교 18주기 추모식 열려



추모식에서 김규호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故 김동식 목사 피랍 19주기·순교 18주기 추모식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생전 탈북민들을 도와왔던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16일 중국 연길에서 납북돼 이듬해 1월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는 "김 목사님은 선교를 위해 중국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탈북민을 만나셨다. 그리고 그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그들을 도왔을 뿐"이라며 "북한은 그런 분을 납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일체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를 비롯한 세계의 인권 단체들의 외침 또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조차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김 목사는 "우리보다 납북자가 많지 않은 일본은 담당 장관을 둘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을 돌려보내고 사과까지 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미국 역시 얼마 전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북한에 납치돼 생사조차 모르는 이들을 방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납북자들을 데려오고, 만약 죽었다면 그 유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 목사를 납치한 북한 당국은 김 목사에게 온갖 위협과 회유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전향하고 탈북자를 도운 과거를 회개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상 전향을 거부한 김 목사는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80kg이던 몸무게가 35kg으로 줄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영양실조로 이듬해인 2001년 감옥에서 순교했으며, 북한 평양 근교 상원리 소재 조선인민군 91훈련소 위수구역 내에 안장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 동포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선교사를 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북한 당국의 야만적인 행위는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김 목사 납치범죄를 사죄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를 송환하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맥도날드 예수'가 십자가에? 이스라엘 성도들 '항의 시위'

앤디 스탠리 목사의 주장에 신학자들 반박


작품 '맥지저스(McJesus)'. ⓒ하이파 박물관

이스라엘에서 '맥도날드 예수(McJesus)' 조각품 때문에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이스라엘 북서부 도시 하이파(Haifa) 박물관 앞에서는 기독교인 시위대가 경찰과 무력 충돌해 경찰 3명이 부상당했다.

시위대는 박물관 출입을 막아선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수류탄까지 발포해야 했다. 시위대는 박물관 앞에서 '종교를 존중하라(Respect religions)'는 피켓을 든 채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맥도날드 광대 캐릭터 '로널드 맥도날드'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맥지저스'라는 작품 때문에 발생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인물은 뼈가 드러나는 상반신에 고개를 떨군 채 하반신 중요 부분을 노란 천으로 가리고 있는 등, 전형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떠올리게 한다. 이 작품은 핀란드 예술가 자니 라이노넨(Jani Leinonen)이 지난 2015년 만든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박물관에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대부분이지만, 소수 기독교인 성도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해당 작품을 '신성모독'이라며 분노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작품 철거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작가인 라이노넨도 박물관 측에 작품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과 인종차별을 비판해 온 그는 "박물관에 '맥지저스'를 전시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태가 커지자 이스라엘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미리 레제브 문화부 장관은 "전 세계 종교인이 거룩하게 여기는 상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물관 측은 "현대 사회에서 병적으로 추종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작가 동의 없이 작품을 전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핀란드 미술관과 협의해 작품을 빌려왔고, 작품 철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종교적·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아주사 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의 영성신학 교수인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사람이 숭배하는 우상이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며, 이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가 성숙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을 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과 같은 우상들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포스터가 고른 이 세 가지는 오랜 동안 인간의 우상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을 사로잡는 이 피조물들에 대하여 유명한 사상가들도 지성적인 탐구를 해 왔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돈, 즉 자본을 문제로 삼고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마르크스처럼 자본에 대하여 연구한 깊이 있는 전문가도 흔하지 않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인간의 핵심 현상은 섹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무의식과 문화를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핵심은 권력을 향한 의지, 즉 권력의 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론과 패러다임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인간을 타락시킨 죄의 문제가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원초적 굴레이며, 이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중대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 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믿는 사람에게 죄용서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한 사람, 곧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의 결단과 행동을 일컬어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던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은 가까이 있으며,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문지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옷이 두 벌인 사람은 그 옷을 헐벗은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세금 공무원인 당시의 세리들은 지정한 것 이외의 세금을 과징함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군인들도 급료를 족하게 생각하고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않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 곧 회개한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개인이나 교회가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며, 가정의 순결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매력적인 삶 때문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새로운 삶과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워라밸을 유지하라!



민 경 엽 목사
나침반교회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해 새 날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뭔지 풍성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과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작심삼일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일마다 작심하여 100번 정도 하면 올해가 끝나니까요. 삼일 동안 술을 끊고, 삼일 동안 담배를 끊고, 삼일 동안 나쁜 습관을 끊으면 어떤 것이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삼일 동안 성경을 읽고, 삼일 동안 기도생활을 하면 누구라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또 권하고 싶은 것은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20세기에 사탄의 가장 큰 공격 목표는 균형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만으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만능, 건강지상주의는 세상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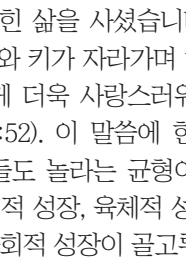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셨을 때 균형 잡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2:52). 이 말씀에 현대의 교육학자들도 놀라는 균형이 있습니다. 정신적 성장, 육체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이 골고루 갖춰져야 전인적인 온전함을 이루는데 이 말씀에서 탁월한 균형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와 키"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우선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신다는 표현 역시 영적으로 올바로 서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올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깨우칩니다.

삶의 전 국면에 골고루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라밸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예수님처럼 균형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스크의 5대강령을 실천하도록 새해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매일기도, 성경애독, 개인전도, 주일성수, 일조전납. 여기에 저는 경건지생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생각하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할지, 가족과 생업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교회 사역과 기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노력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승리하는 2109년을 사실 것입니다. 올해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두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갓블레스유 VS. 밥블레스유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요즘 한국에서 최고의 스타는 BTS(방탄 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가수 그룹과 백종원이라는 요리사입니다. 이분이 오픈한 프랜차이즈 종류가 무려 28개, 매장수로 따지면, 천 단위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와 관련된 티비 프로그램 고정 출연만 여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전 세계적으로,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시식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는 "먹방"이라고 해서, 특정 음식의 맛을 평가해 주는 방송이 인기입니다. 참고로 먹방이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써, 음식을 먹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방송입니다.

과거에는 음식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일은 미식가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미식가가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맛있는 음식에 열광합니다. 모두가 맛집을 찾아다니기에 바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 지금 먹는 요리, 그 요리를 먹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밥블레스유라는 티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밥블레스유", 말 그대로 "밥이 당신을 축복한다", "진정한 축복은 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갓 블레스 유"를 흉내 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먹는 본능에만 충실해져 가는 세상 풍조를 바라볼 때, 위기감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치중하라는 권면입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뭐 먹지? 뭐 마시지? 뭘 입지?"와 같은 고민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로 관심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히 육신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Youth Minister
Beautiful Church

- Categories : Youth Pastor
- Denominations : Baptist-SBC
- Job Type : Full-Time

Job Description

The Youth Pas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leadership, oversight and implementation of the youth ministry at Beautiful Church, which includes teens from thirteen years old to the age of eighteen. The Youth Pastor will work with the Director of Education Ministries m (DEM) for the goal of overseeing all ministries and events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reaching and discipling teenagers in Christ.

Application Procedures

Interested and qualified individuals should send a cover letter, resume, sample message (MP3 or MP4), Personal Testimony, Calling to Ministry, 2 References Letter (One from Former Ministry) along with salary expectations electronically to beautifulchurch@hotmail.com. Candidates who appear to be a good match for both Beautiful Church and this position from a preliminary review of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will be contacted for interviews and further candidating steps.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기독일보 목회자 청빙 참고
www.kr.christianitydaily.com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 626-810-3455

제44대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취임회장 : 김영균 장로
이임회장 : 김용식 장로

일시 : 2019년 1월 27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구세군 나성교회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문의 : T.(213) 598-7596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시하라 모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 · 지방 · 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더불어 젊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와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콘덜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함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혈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 (미세혈관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관리은 임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장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I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프로지 PRO-Z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PRO-Z Glucose Control 60 capsules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인기상품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주님미디어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물티슈
주보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주변부는 모든 기독교 선교의 중심”

[이슈&북]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

‘난민’은 지난해 우리 사회와 교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예멘인들의 제주도 난민 신청을 계기로 유럽과 북미만의 일로 여겼던 난민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교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계속됐다. 특히 국내 난민들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점에서, 선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나온 도서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는 풍부한 세계적인 사례와 실천적 지침, 그리고 성경 속 난민에 대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강해로 그리스도인들의 관련된 생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2011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KGMLF(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의 네 번째 발간 도서로, 2017년 11월 속초에서 열린 제4회 KGMLF에서 발표하고 논평한 글을 엮은 것이다.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선교 책무
김진봉 외 | 두란노 | 532쪽 | 23,000원

남한 내 북한 이주민(탈북민)을 비롯해 이라크 난민, 레바논 시리아 난민, 아프리카 난민, 유럽과 중앙아시아(키르키스스탄) 등으로 이주한 난민, 해외 필리핀 노동자, 미국 내 ‘라티노’ 난민, 한국 내 조선족과 이주노동자 등 전 세계에 고향과 민족을 떠난 ‘흩어진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와,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할지 모색하고 있다.

기고자도 예수원 벤 토레이 신부를 비롯해 선교학자 앤드류 F. 월스, 풀러신학교 박기호 교수,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저자 사디리 조이 타라 교수, 인터서브 정마태 선교사, OMSC 김진봉 선교사 등 34인에 달한다.

한국 상황을 다룬 내용을 보면, 한국외국인선교회 대표 전철한 선교사는 ‘한국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디아스포라’는 초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 밖으로 흩어진 것을 가리켰지만, 하나님은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며 “현재 700만 넘는 한국인이 한반도 밖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숫자는 21세기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을 나타낸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해외 선교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전망했다.

전 선교사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돼, 한국은 오늘날 200만명이 넘는 이방인의 거처가 됐다. 이 수치는 총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많은 한국인은 교차 문화의 공존에 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이러한 태도가 무수한 문화적 갈등을 낳았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 선교사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 선교는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의 가교가 되어 양쪽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더해 준다는 부가적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교회와 선교단체는 헌신된 이주 노동자를 훈련하여 그들이 귀국하면 선교사로서 자기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며 “그들은 이미 현지 언어를 구사하며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확장시키는 이상적인 선교사가 될 것이다. 믿는 이주 노동자들이 모국에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모든 자원을 헌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우리는 한국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도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추수를 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더 개방적이며 민감하다. 고국에서 흔히 받았던 문화적, 종교적 압력과 제약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전도가 가장 필요한 이슬람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더욱 그렇다. 선교사와 평신도들은 지역 교회의 자원을 모음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전도를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철한 선교사는 “이주 노동자 선교를 통해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동포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며, 그들의 고국에서 이미 사역 중인 다른 선교사들과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의 교회 개척 노력을 지원하고, 고국에서 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가정교회를 세우는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민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 토레이 신부는 ‘남한 내 북한 이주민: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가?’에서 “남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쩌면 북한 이주민이 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주민의 문화와 배경의 많은 부분은 공산주의 및 북한식 이데올로기와 지도자 우상화로 이뤄져 있다. 동시에 남한 교회 문화의 많은 부분은 반공산주의와 강력한 유교 문화 기반의 민족주의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토레이 신부는 “양측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양측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각자의 신앙을 높이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남한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남한 중심으로 개발해 온 교회 프로그램들을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재조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는 치유와 수용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 안에 참된 회심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이주민들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회 출석이나 개인적인 간증 나눔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에게 극진히 헌신하며 ‘타인’, 즉 소외된 자 없는 유기적인 신앙 및 예배 공동체 속으로 포용하는 데 초점을 둔 전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GMLF 이사장 및 보스턴대 연구교수인 조나단 J. 봉크 박사(Jonathan J. Bonk)는 마무리 요약에서 “교회가 소위 불법 이민자와 난민들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문밖에 세워둔 채로 문을 두드리게 해 드리는 셈”이라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을 통해 회중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밝혔다.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기적인 민족주의와 종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와 끔찍한 환원주의와 그에 항상 수반한 율법주의를 인식하고 그것들에 저항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웃, 즉 빈민과 죄수, 고아와 노숙자, 외국인, 원수와의 구체적인 관계 안에 가족의 닮음과 친밀함의 증거가 있다. 주변부는 모든 진정한 기독교 선교의 중심”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 진리의 불변성과 절대성”

2천년 기독교 교리사 20여년간 집대성한 〈기독교 교리 사상사〉



기독교 교리 사상사
임영옥 | 가나북스 | 1,000쪽 | 80,000원

〈기독교 교리 사상사〉는 임영옥 목사가 동서양을 넘나들며 20여년간 연구해 집대성한 결과물로, 2천년 기독교 역사를 사상적 측면에서 파고들고 있다.

저자는 집필 의도에 대해 “21세기를 맞아 종교들 역시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 예외없이 세계 질서의 조류에 맞춰 새로운 선교 전략과 함께 자기 위치의 정립을 위해 온갖 정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독교의 정체를 바로 제시해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절대 불변이라면, 당연히 기독교 진리의 불변성과 절대성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은 그것이 아무리 이상적인 추구요 현실적인 논리라 하더라도, 성경적 교의에서 빗나갔을 때에는 정통성을 가진 기독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의 진리를 사이비한 사상이나 운동에서 더욱더 굳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독교 역사를 협의적 의미에서 생각하면 세계사 속의 한 부분사로서 약 2천년간의 역사 속에서 순수히 기독교적 입장에서만 이해하게 될 것이나, 가장 원칙적이고 광의적 의미에서의 사관으로 볼 때는 기독교사가 우주사나 인류사에 앞서 해석되고 이해돼야 할 것”이라며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시작해 천지창조와 인류의 창조 및 시작에서부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관 곧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를 교회사에서부터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은 총 6편으로 구성돼 있다. 1편 ‘총론’에서는 기독교 발생 당시의 교리부터 신학파 형성, 성경 사본과 번역 역사, 각종 신조와 기독론·삼위일체론 등 주요 교리사상의 형성과 발전 등을 논하고 있다.

2편 ‘기독교 교리사상의 발달사’에서는 예루살렘부터 칼케톤 공의회까지, 그리고 교부 시대의 교리사상과 이단의 출현, 어거스틴과 로마 가톨릭 교회 등장, 스콜라주의 철학까지를 다루고 있다.

3편 ‘종교개혁기 교리사상’에서는 교황정치의 부패와 타락, 종교개혁기의 사상적 갈등, 그리고 존 위클리프부터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까지 교리와 사상, 종교개혁 후기 신조주의자·경건주의자·혼합주의자·유니테리언의 교리 사상, 로마가톨릭의 개혁과 청교도, 존 웨슬리까지를 망라한다.

4편 ‘근세 시대의 교리사상’에서는 계몽주의와 이성종교, 낭만주의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그 시대부터 등장한 슐라이어마허와 헤겔, 벨하우젠과 스트라우스 등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신학자들의 교리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을 소개했다. 5편 ‘자유주의파의 교리사상’에서도 알브레흐트 리츨과 아돌프 하르낙, 윌터 라우센부쉬 등을 고찰했다.

6편 ‘현대주의 교리사상’에서는 사신신학과 과정신학, 여성신학과 종교다원주의,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등 세속화 신학을 논하고, 쇠렌 키에르케고어와 칼 바르트, 에밀 브룬너와 폴 틸리히, 루돌프 불트만과 그 반동으로 등장한 신개혁주의와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등을 훑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교회 초기 역사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압도적인 분량의 논의를 마치면서 “기독교는 계시종교로서 그 계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나,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거나 시비하고 나섰으며 더러는 부정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리하여 기독교의 교리사상에 대한 시비와 논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변론하고 증거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도적 신앙의 전통과 교리신학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는지 정리해 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교리 문제를 둘러싸고 시비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성경에 가까운 진리에 따라 바른 교리사상을 들어 자기 변증을 하고 진리를 옹호하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시해 상대를 설득시키고, 마침내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데 신학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겨울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마감일 년 월 일
등록상담전화

겨울학기일정

년 월 일 토 년 월 일 토
매주 토요일 과목 학점이 개설됩니다

교시 오전 시 오전 시
교시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점심식사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채플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교시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교시 오후 시 분 오후 시 분

모집과정

학사: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THEOLOGY 신학박사
DOCTOR OF MISSIONARY 선교학박사
PH.D. CHRISTIAN COUNSELING 기독상담학철학박사
PH.D.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육철학박사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북한 인권 빼놓고 통일부터 말해선 안 됩니다”

‘탈북민 대모’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는 올해 만 95세로, 예전만큼 활발히 활동하진 못하지만, 약 2시간 동안의 인터뷰 내내 지친 기색 없이 말을 이어갔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증언할 때는 더없이 목소리에 힘을 줬다.

기독교와 주체사상은 공존 불가능
북한 인권 참혹… 아기 태반 먹고 살아나기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몰라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나 1948년 월남한 주선애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95).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독교교육학 교수가 됐다. 장신대에서 만 2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1989년 은퇴했다. 그 뒤부터는 생애 거의 대부분을 탈북민들을 돕는 데 바치고 있다. 그녀가 ‘탈북민 대모’로 불리는 이유다.

“하나님 은혜로 이 만큼 살았으니 탈북민들을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못 나왔으면 나도 저들과 같았을 텐데, 어찌 저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월남은 왜 하셨나요?

“(북한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요. 교회 나가면 반동이라고 하고, 아오지 탄광에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주일에 교회 갔다가 다음 날 학교 가면 매를 맞고 그랬어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순교를 하든지, 탄광에 붙잡혀 가든지 둘 중 하나니까, 차라리 남쪽으로 가서 자유롭게 하나님 믿자’고 했던 겁니다. 그 때 집집마다 걸려 있던 게 ‘당이 명하면 충성뿐이다’ 이런 식의 글이었어요. 미국 사람 짓밟는 그림도 있고. 그런 걸 보는 게 마음 아팠어요.”

북한 정권은 북한 내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드는데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진짜가 아닙니다. 2001년에 봉수교회에 갔던 적이 있는데, 목사도 있어서 정치 강연 비슷하게 하더군요. 사람들 오면 그저 구경시키고 연보나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황장엽 선생도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故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와도 생전 친분이 있으셨죠?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문병을 갔을 땐 스스로 기도도 하셨는데, 참 잘 하셨어요.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며.

그 분이 ‘통일은 기독교 아니면 안 되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주체사상으로 해봤자 자꾸 혁명만 하고 사람 죽이는 것만 하니까 안 된다고. 기독교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 때는 기독교와 주체사상을 서로 맞춰보려고도 하셨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주체사상은 완전히 인(人)본주의고 기독교는 신(神)본주의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체사상이 아닌 건 아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주체사상이 꽉 박혀 있어요. 눈 감고 그냥 주체사상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또 잘 믿는다는 거예요.”

북한 인권의 실상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참혹합니다. 신발은 김일성 살아 있을 때나 신어보고 그 뒤론 없어서, 겨울에 눈이 오면 비닐로 발을 싸매고 다녔다고 해요. 이불도 김일성 때 받은 것 하나로 수십 년 째 온 식구가 덮었고. 난방이 있나 뭐가 있나. 추우면 쌀겨 더미에 기어 들어가 목만 내놓고 있었다는데.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이토록 춥고 배고프니 도둑질을 해도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훔치든 뭐든 해서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시킨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생쌀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논 주변에 가는데, 그걸 아는 당국이 군인들을 보내서 쌀을 지키게 한대요. 잡히면 매를 맞는다고.

한 번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한 탈북민이 학교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비롯한 교수들이 죽 앉아 있는데도 묻지도 않고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공산주의 식으로 똑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또 한 분은 남편과 탈북을 하려다 잡혀서 수용소에 갇혔었답니다. 그 뒤 남편과 갈라졌는데,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대요. 그 자신도 수용소에서 주는 강냉이 몇 알을 먹고 근근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서 나왔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기 태반을 구해와 그걸 먹고 겨우 살아났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 하지 않고 통일부터 말해선 안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추울 때 따뜻한 방에 누우면, 추위에 떨고 있을 북한 사람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김정은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몇 명을 빼고는 다 새우잠을 자겠지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3~4만 명의 기독교인들도 잡혀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분은 성경책이 발각되어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다가 며칠 뒤에 풀려났는데,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혁명이란, 사람을 죽이더라도 해야 할 과업인 까닭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세계복음화이듯, 북한도 전 세계를 공산화 하고 사회주의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통일을 이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론 저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비단 북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처럼 더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해선 안 됩니다.”

북한 선교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정욱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중국 국경에서 그곳으로 나오는 북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름 정도 가르치면 마음이 갈급한 북한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국수라도 삶아 주면서 집으로 초대를 한대요. 그럼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걸 안 김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북한에 들어가 국수공장에 국수 말리는 기계를 사주려 한다는 거예요. ‘북한 교회가 살아야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 소릴 듣고 ‘북한 가면 붙잡힐 수도 있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목숨을 걸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하더군요. 결국 어렵게 모금을 해서 평양에 가셨지만, 곧바로 붙잡혔다고 해요.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게 전화를 거신 김 선교사님께 ‘조심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는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생명과 신병상태가 매우 위태롭다”고 했다. 이 단체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조사와 구금, 강제노동에 의한 고통과 북한의 체제선전 학습 거부로 중한 고문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

김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북한의 유인으로 추정되는 기획입북으로 북한에서 체포된 뒤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억류되어 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지 알아야 복음도 전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선 한국교회라도 탈북민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할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합니다.”

주선애 교수는 평양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뒤 영남대에서 영문학을, 미국 뉴욕의 비블리컬 신학교에서 교육학을 각각 전공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기독교교육 학자로 숭실대와 장신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퇴임 후 경기도 포천의 은성수도원을 인수해 장신대에 경건훈련원으로 기증했다. 탈북인종합회관을 약 5년 간 이끌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한인 2세가 감옥에 있다는 것 상상도 못했는데…”

The Lock Ministry 한기영 목사



The Lock Ministry의 한기영 목사. 2017년 17년간 목회한 교회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온 그는 우연히 방문한 교회를 통해 교도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독일보 사무실에서 The Lock Ministry의 한기영 목사를 만났다. 2017년 17년간 목회한 교회를 은퇴하며 33년을 산 미시간을 떠나, 자동차에 당장 필요한 옷가지를 싣고 캘리포니아로 왔다. 그리고 작년 10월 《갇힌 자에게 놓임을》 을 펴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LA에 언제 오셨나요?” 통성명 같은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긴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재작년 1월 말에 LA에 왔다. 브레아에 있는 엠베서더교회(Ambassador Church)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 한국인 2세가 목회를 하는, 다양한 인종이 모인 다민족교회다. 25년 전 그곳 목사님이 탈봇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계실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오셔서 청소년 수련회를 섬겨 주셨던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다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모임에 갔다가 남상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마침 그분이 저와 동갑이셔서, 제게 무슨 교회를 다니시는지 물으시며, 부에나팍에 있는 원호프교회(One Hope Church)를 소개해 주셨다.”

“원호프교회는 한국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나오는 교회인데 한국 목사님들이 교대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 수 20명 정도의 작은 교회다. 그 교회 절반이 저 같은 은퇴한 목사이고 반은 양로사역, 노인대학, 멕시코 선교 등을 하신다. 거기서 감옥 사역을 하시는 John Lee 목사님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게 됐다.”

“미시간에 있을 때는 한인 2세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한인 2세들이 감옥에 갇혀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 교회를 가 봤고, 부모님도 모두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인 경우도 있었다.”

“19살의 데이비드(가명)는 머리는 모호크 스타일로 자르고,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처음 나왔는데 무시무시했다. 감옥에서 면회를 하면 2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대화를 마치며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도와 줄 것이 있는 지 묻자, 그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John Lee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50불까지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50불을 넣어주었고 3주후 그를 다시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물었다. ‘기도 말고 너를 위해 해줄 게 있냐.’ 그의 대답은 지난번과 똑같았다. 감옥 안에서도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이 됐지만 지갑에 있던 40불을 줬다.”

“2주후 그를 만났는데, 그가 “pastor Han, pastor Han”이라며 반갑게 나를 맞았다.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다.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지지 않아서 별명이 rush였고 19살 때, 이미 총을 세군데나 맞았고, 12살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 했던 아이였다. 그런 그가 다시는 절대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작년 4월 재판을 받고 무죄(not guilty)로 풀려나왔다. 고등학교 자격증을 받아 사이프레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했다.”

그는 이들을 만나며 발견한 사실은, 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젊은 수감자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깨를 들어 올릴 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베소서 2:10절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걸작품’(God’s Masterpiece)임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 약 한 달간 그에 대해 글을 적기 시작했다. 그렇게 쓴 글이 모여 한달 만에 책으로 나오게 됐다.”

Lock Ministry란 무엇인가?

“재작년 9월 첫째 주일날, 우리 감옥 사역팀에서 돌보던 한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엠베서더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는 매주 예배를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점심을 먹고, 청년 소그룹 모임에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딱 2달 만에 끝났다. 12월 첫째 주일이 됐을 때 그가 오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들이 다시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 사역이 실패했다.”

그는 그 실패의 원인을 팻 놀란의 책 《죄수가 돌아올 때 (When Prisoners Return)》에서 발견했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던 팻 놀란은 횡령으로 감옥에 들어간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를 그만두고 찰스 콜슨이 이끄는 교도소선교회(Prison Fellowship)에 들어가 교정사역을 시작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재소자가 돌아올 때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운전면허도, 직업도, 의료보험도 없다. 미국 내 감옥에 있는 재소자는 220만 명에 이른다. 그중 매년 60만 명이 출소하지만 67.8%가 3년 내에 다시 잡혀 들어간다. 이를 재범(recidivism)이라 한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번째, 교회가 멘토 역할을 해줘야 한다. 청년들을 만나며 정말 답답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형 같은 멘토를 만났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란 점이었다.”

“미시간 주변에는 큰 호수가 많다. 그런데 이 호수들의 높이가 같지 않아서 큰 급류가 생기기 때문에 배가 다니지 못한다. 북 미시간에 수 세인트 마리 라는 도시가 있다. 캐나다 접경 도시인 거기서 수퍼리어 호와 휴론 호가 만나는데, 이 두 호수의 높이 차를 극복하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갑문(the Lock)을 설치했다. 파나마 운하에도 태평양과 대서양의 높이가 달라 갑문이 설치되어 있다.”

“갑문은 양쪽에 수문을 만들어, 수위를 갖게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 마치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길러지듯,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정도가 될 때까지 보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Lock Ministry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Love of Christ’s Kingdom, Learn On Christ’S Kingdom, Live Out Chist’s Kingdom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감옥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큐티집, 성경책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리고 먹고 살 곳을 줘야 한다. 다음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는 이 사역을 위한 모델로 삼는 교정 사역 단체들에 대해 설명했다.

“예수회 그레고리 보일 신부가 1992년 LA에 갱단 재활을 위해 설립한 홈 보이 인더스트리즈(Homeboy Industries)는 식당과 빵공장을 운영하며 이들에게 직업을 제공한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드렌시 스트릿 재단(Delancey Street Foundation)은 1971년 미미 실버트 박사에 의해 시작됐다.”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심리학과 범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감옥에서 나온 청년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 재우기 시작해 47년 동안 1만 5천명 이상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릿지 아래 500명 동시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어 1,2층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3,4층은 숙소로 사용한다. 이 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40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자급자족하고 있다.”

“미미 실버트 박사는 이곳을 ‘꼴찌들을 위한 하버드’라고 부른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정장으로 갈아 입히고 오페라 공연에 데리고 간다. 정장을 한번도 입어본 적이 없고, 오페라 공연에 가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또 ‘Teach other, each other’ 이란 모토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고, 중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은 초등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며 아무 것도 가르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기영 목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미 크리스천이거나 최소한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교회가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나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교회가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돕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디 한 기자



100년전 삼일독립을 2019년 복음통일로

미주디아스포라 대결집

복음통일전문세미나/연합기도회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

고국의 복음통일을 위하여 선교역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와 영화, 동족선교 사역 등의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주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미주 디아스포라들의 연합기도로 함께 합니다.

- **대상** : 미주 각지역의 성도 및 통일을 기도하는 단체와 기도자들
-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후 2시 ~ 15일(금)
- **장소** :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 **문의** : T.(425)775-7477, 기독일보 T.(213)739-0403, 사랑의빛선교교회 T.(626)744-9191

공동대표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박사

저녁집회 메시지


임현수 목사


이정훈 교수


이승종 목사

영역별 강의 | **주관교회** | **총무간사**


이학준 교수 플러신학교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총장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대표


윤학렬 영화감독 '철가방 우수씨'외 다수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대북설교


윤대혁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

■ 영역별 주제와 강사들

2월 12일(화) : 오후 2시~5시, 13일(수)~15일(금):오전 9:30~11:30 / 오후 1:30~4:30

역사 –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통일"
이학준 교수(플러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Ph.D)

현재 이슈와 국제 정치법 –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이정훈 교수(울산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제 – "통일경제방안, 실사구시의 길이 있다"
신창민 교수(서울대 법과대학, 클레아몬트 경제학박사)

세계선교 – "남북통일이 세계선교에 미치는 영향"
송 원 선교사 (Cross선교회 상임연구원)

문화와 영상 – "영상의 영적분별력과 영상문화의 영향력", "통일영화제작이 필요합니다"
윤학렬 영화감독 (서울예대, 삼일독립100주년 남북공동시사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제작중, LA 아리랑/오박사네 사람들, 철가방우수씨, 지렁이 등)

통일신학교육 –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이상명 교수 (미주장신대 총장)

탈북사역 –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대표)

북한지하교회 – "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
강석진 선교사 (극동방송 대북설교방송요원)

디아스포라 – "차세대 양육과 통일선교"
이승종 목사 (한인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

통일의 전략 – "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 끝까지"
김요한 목사 (GMS 총회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 저녁집회 메시지와 강사들

2월 12일 화요일 저녁부터 매일 오후 7시~9시

첫째날(12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임현수 목사
둘째날(13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자"	임현수 목사
셋째날(14일)	"청교도윤리로 세운 위대한 미국"	이정훈 교수
넷째날(15일)	"복음적 통일, 제단불 회복"	이승종 목사

주최 :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Global Expert Network for Reunification Korea)
주관 : 사랑의 빛 선교교회 협찬 : T.M.T.C, (사)합류통일동포연합, 기독일보, 기드온동족선교